

오름허리 좌정헌  
 할마님은 송씨할마님  
 할으바님은 산신백관.  
 할로영주산에서 무유희게  
 시성제가 탄싱히여 사는디  
 큰성님이  
 아바님 어머님에 불효해서  
 “느냥으로 아무디나  
 떠나라”고 내조친 게  
 도들봉 오름에 완  
 천정배필 7심  
 송씨할마님을 만났습네다.  
 송씨할마님은  
 갈티 올티 엇인  
 할으방을 만난  
 부배간을 삼아서 사는디,  
 히로은 의논을 히되,  
 “우리가 어떻히여서라도  
 먹영 살 수단을 히자.”  
 히연,  
 높은 도들봉 오름에서  
 스방을 슬퍼 보니  
 집도 많고 인민도 많고  
 족손덜도 많고 히연,  
 미신 수단이 날 듯  
 히였습네다.  
 히를날은 할망 할으방이  
 즘을 자다가  
 붉는날은 일어난  
 남쪽데레 돌아사서  
 손을 받아 말을 히명  
 “산신님이 신령이건  
 우리안티 어떻히  
 영을 내리와 주십서.” 히고  
 빌어가니,

ㅁ을 사름들이 나산 보고,  
“어떻ㅎ난 오름에 전이 엇이  
백발노인 부배간이 나산  
손을 받안 빌엄시닌?  
거츰, 이상ㅎ 일이여.”  
ㅎ명서도  
“이게 필요ㅎ 일이라”ㅎ고,  
ㅁ을 유지자들이 모여앗아  
“이제 우리 ㅁ을에  
저 오름의 어른들을  
큰 어른으로 모시게.”ㅎ연  
의논이 돌았습네다.  
ㅁ을에선 오름허리에  
꽃낭 싱그고 탑뭇고 ㅎ연  
“ㅁ을 본향으로 위ㅎ게”  
ㅎ였습네다.  
그영ㅎ였는디,  
그후 ㅎ로은 그 ㅁ을에  
아주 머리 썬 양반이  
나타난,  
“오름에 뭇 귀신이  
있겠느냐?”ㅎ명,  
본향에 간, 담도 몰아불고  
낭가지도 근차불고 ㅎ난  
본향에선  
“이제랑 이 ㅁ을에  
조애를 주자”ㅎ연,  
어린애긴 허멀도  
많이 나게 ㅎ곡,  
죤순 물에 들레 강  
죽게 ㅎ곡,  
보제기도 바당에 가민  
배 얹어불곡, ㅎ명  
풍문조왈 주였습네다.  
그영ㅎ연 이 본향의  
할망 할으방은  
“이 ㅁ을에 앓일 곳이  
아니다”ㅎ연, 오름에서

알레레 느런,  
 신당으로 모신 것이  
 오래물은 철로부인,  
 수진뻘은 삼천백매또  
 고봉개 노적부인  
 지름물은 물감상,  
 활성동산 신임대부인,  
 백개 붉은왕돌 신임제석,  
 남당은 칠머릿당으로  
 위하자.  
 오도룡은 구가삭 신가삭  
 오금상 금배리 시왕상숯또,  
 웃당은 큰도한집으로 위하고,  
 가운데 뽕뻘또로 위하고,  
 알당은 축일한집  
 쇠 잘 되렐 위하곡  
 흘개 고냥할망,  
 몰래물은 장진에서  
 들어온 쇠출래미 영감또.  
 혼도 두도 쭈물두도  
 가지갈른 송씨할마님.

제일 1월 15일  
 1월 3일  
 1월 7일

<제주시 삼도동 여무 45세 문옥선님>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pp.355-356.